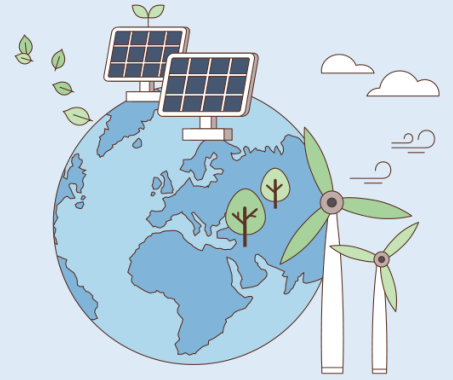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美,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중 40% 추진 *아시아경제*
- "버려지는 산림자원들,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로 바꾼다" *이데일리*
- 북극 녹아내리고 텍사스는 얼어붙었다...기후변화의 역설 *서울경제*
- 美·中 기후 회담 합의 도출 실패...中 "우리 로드맵 따로 있어" *뉴스1*
- CJ·오뚜기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 제거 예정"...풀무원은 '무응답' *한겨레*
- 국민 90% "내년 대선에 기후위기 중요외제로 다뤄야" *문화일보*
- 현대차, '2045년 탄소중립' 선언 *뉴스1*
- 전 제품 점자 넣고 리무버블 라벨 붙이는 오뚜기의 '진심' *한국일보*
- '친환경 항공사' 동참에 속도 높이는 대한항공...탄소중립항공유 도입 *국민일보*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하반기 공정위 정책방향 플랫폼에 집중...독과점·갑질·소비자 기만 막는다 *헤럴드경제*
- 쉐릴, 오픈마켓 진출 본격화...PG업체 인수 *한국일보*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첫 재판 다음 달로 미뤄져 *한국경제TV*
- 현대중공업 수요예측서 경쟁률 1836대1 기록... 공모가 6만원 확정 *이코노미스트*
- 인천공항 '유리천장' 깨다...여성임이사 22년만 첫 배출 *뉴스1*
- 롯데쇼핑, 한샘 인수 전략적 투자자 참여... "그룹 차원 시너지 기대" *세계일보*
- "3년 내 M&A" 공언했는데...반도체 안보경쟁에 고인 삼성 청사진 *머니투데이*
- KT 지니뮤직, IPO 앞둔 '밀리의서재' 품었다 *비즈니스위치*
- 법정 다툼 중인 대웅제약·메디톡스 '이질한 동거'...도대체 무슨 일? *뉴스1*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생존위협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에 투쟁 선포" *뉴스1*
- 500대 기업 여성임원 첫 5% 돌파... "법 개정 덕 봤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 *한국일보*
- 텍사스 낙태금지법 후폭풍...美기업들도 반발 *뉴스1*
- "소상공인 성장이 우리의 성장"... ESG 힘 실는 네이버 *한국일보*
- "페이스북, 월 평균 점유율 92%" 美 FTC, 반독점 증거 추가 *이데일리*
- 네이버, 3년간 87억 임금체불... "청산계획 불명확" *서울경제*
-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입증책임 근로자에게"...대법, 판례 유지 *뉴스1*
- 삼성·CJ·롯데 채용 스타트...직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는' *서울경제*
- "너무 적은 대기업, 성장 멈춘 중소기업...일자리 걸림돌" *아시아경제*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토탈, 이라크 에너지 인프라에 30조원 투자 약정 *파이낸셜뉴스*
- "투자할 곳 없다" 英 슈퍼리치...1.6조원 '통큰 베팅' 결심한 사업 뒤통이에 *머니투데이*
- ESG 투자, 英보다 더 빨리 더 많이...파리, 유럽 금융허브 노려 *서울경제*
- 바이든, 기후변화 문제 '코드 레드'..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 ESG 투자, 임팩트 있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라 *이코노미리뷰*
- 자동차 탈탄소 로드맵, 메이커·국가별로 살펴보기 *조선일보*
- "ESG 실천 못하는 금융사 외면받을 것" *한국경제*
- KPC, 중기·공공 ESG 확산 속도 *파이낸셜뉴스*
- 닛토야타,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16조원 투자 *이데일리*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기업지배구조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9.06

G

- 복수의결권은 1주로 다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허용하는 제도임.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음으로써 초기 창업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며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됨**
- 최근 쿠팡의 뉴욕 거래소(NYSE) 상장을 통해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 도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복수의결권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본비용의 증가 및 신용등급의 하락,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이익조정 가능성, 정보비대칭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복수의결권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실제 보유한 주식수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음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복수의결권제도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 자금조달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성이 부족함
- 현재 상법상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도 발행할 수 있으나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음
- 현재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시차임기제, 자기주식취득, 주식대량보유신고제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도입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유럽 기후은행으로서 EIB의 역할 변화 분석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9.03

E

-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함
- 유럽 그린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수립함
- EIB는 유럽 그린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 기후은행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EU의 기후은행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기후은행 로드맵은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의 촉진, 파리기후협약과의 일관된 금융지원을 목표로 EIB의 금융지원 방향을 제시함
- EIB는 1) 2020~30년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환경을 위해 1조 유로의 투자, 2) 202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환경 관련 분야에 전체 금융지원의 50%까지 비중 확대, 3) 향후 수행되는 모든 금융 활동 및 운영계획을 파리기후협약의 원칙 및 목표와 일관되게 유지할 계획임
- 녹색금융 지원대상 분야는 기후대응 역량 제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운송체계 등 12개로 유럽 그린딜에서 발표한 지원분야와 유사함
- 에너지 대출 정책은 EIB가 2013년 발표한 기존 정책인 '에너지 대출 기준'을 바탕으로 파리기후협약 원칙 및 EU의 기후대응 목표를 반영함
- 또한 EIB는 유럽 핵심 금융지원 수단인 InvestEU Fund의 75%를 담당하고 있음. 이를 통해 공정전환 관련 시장실패 영역에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 특히 지역난방, 건물 개조,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공공분야를 지원할 예정으로, EU 예산은 보조금 형식인 반면 EIB 자금은 저금리 대출 형식으로 사용됨
- EIB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그린경제 전환 분야의 Financing Gap을 선도적으로 충족시켜줌으로써 민간금융을 유인하는 효과를 창출해야 함
-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E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 KORTA 21.09.08

- EU 집행위는 2019년 2월 2050년 탄소중립(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EU ETS(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 확대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명시함
- 이후 유럽기후법을 통해 유럽 그린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고, 유럽 기후법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위는 역내 법률을 재정비한 'Fit for 55' 초안을 발표함. 이러한 입법안 패키지에 CBAM이 포함된 것임
- 대상 품목은 EU 역외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임. 탄소누출 위험이 크고 직접배출량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품목에 대해 우선 시행됨
- 대EU 수출을 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나 해당 국가 내에서 보조금 없이 해당 수입품에 지불한 탄소가격이, EU ETS가 적용되는 제품보다 효과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
- 역내 수입업자로 하여금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EU ETS와 연계하여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을 연동시키는 원리임
- CBAM 적용품목 중 역외국으로부터 수입규모가 가장 큰 철강의 경우 러시아, 중국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러시아산 철강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고로생산 비중이 높아 CBAM 인증서 구입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026년부터 EU ETS 무상할당이 연간 10%씩 감축되어, 2035년에는 전면 중단되는 바 2035년 기준 CBAM 인증서 부담액이 급증할 예정임
- 한편, 미국도 USTR '2021 통상아젠다'를 통해 필요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미 행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임
-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이 2021년 7월 19일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EU CBAM이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함
- 러시아 정부는 CBAM 조치의 목표와 실행 목표가 불명확해, 글로벌 보호주의, 시장블록화, 기술교류 차단, 지역차별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함
- 국내 기업의 경우, CBAM 과도기간 중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EU 인증절차 대비가 필요함
- CBAM 인증서 가격이 EU ETS 배출권의 경매 가격에 연계된 바, 인증서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업계의 면밀한 배출권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ETS와 K-ETS 간 가격 스프레드에 해당되는 만큼, 배출권 가격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매수 시기 결정이 가능함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1.09.07

E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을 일상으로 체감하고, ESG 경영 확산으로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기업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음
- 대표적인 변화로 '미닝아웃(Meaning Out)'을 꼽을 수 있음. 미닝아웃은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커밍아웃(Coming Out)'과 '신념(Meaning)'이 합쳐진 말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말함
- 소비 행태가 착한 소비, 친환경 소비로 바뀌면서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과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함
- 소비자 10명 중 5명(55.6%)은 '소비' 분야에서 친환경 행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함. '교통' 분야(23.4%)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나 1위 '소비와 격차가 상당했음'
- 세대별로 살펴보면 '소비' 분야에서 친환경 행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응답은 Z세대가 46.1%로 가장 적었고 X세대가 59.0%로 가장 많았음. 베이비붐세대(57.1%)나 밀레니얼세대(54.9%)도 X세대와 비슷한 비중을 기록함
- 반면 Z세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가능한 '교통'(29.6%) 분야,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사용하기 등이 가능한 '주거'(13.9%) 분야에서 밀레니얼세대(각각 22.2%, 8.6%), X세대(각각 21.6%, 6.6%), 베이비붐세대(각각 22.4%, 7.1%)에 비해 친환경 행동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답함
-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는 친환경 소비 키워드는 '업사이클링'(재활용, 29.7%)과 '제로웨이스트'(노플라스틱, 22.6%)가 가장 많았음. 세대별로 보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는 밀레니얼세대가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임. 반면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는 Z세대(33.0%)가 밀레니얼세대(22.8%), X세대(18.9%), 베이비붐세대(2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임
- 소비자 관점에서 친환경 활동을 가장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지 설문하여 산업별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기업이 가장 많이 뽑힌 산업은 '자동차'로 75.2%를 차지했고 '쇼핑'(63.7%), '가전·전자기기'(61.6%) 순으로 뒤를 이었음

G

국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및 제재 현황과 시사점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1.09.06

- 국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시 반복과 공시불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거래소에 의하면 공시위반 기업은 2016년 73개에서 2020년 114개로 증가하였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72개 기업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중 80% 이상이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매년 상장기업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대비 공시를 위반하는 기업의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0년 6.8%로 증가함
- 거래소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상장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시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 제재금 부과 규모도 매년 확대됨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등 위반동기와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 등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점이 0~10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됨
- 과거 1년 이내의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일 때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1년 이내 15점 이상이 되거나 중과실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격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함
-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제재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공시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시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공시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대응할 공시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스템 미비에 기인함
- 미국 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산업규제기구인 FINRA의 인적 퇴출 등의 인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감독 및 징계를 받으며 잘못된 공시에 대한 경정요구 및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함
- 홍콩 거래소는 공시가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및 벌금과 같은 제재를 가함. 기업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과 이사들에 대해 최고 800만홍콩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있는 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제재 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공시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화된 공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 정보를 얻는 통로인 기업공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함

정유산업의 탄소중립 영향과 국내 대응 동향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9.03

E

- 2019년 기준 국내 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596.5만톤이며, 정유산업의 배출량은 32.1백만톤으로 전체 산업(26개) 중 5위임
- 정유산업은 석유소비비가 많아 석탄소비비가 많은 철강 등 타산업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음
- 현재 정유산업은 배출권 무상할당 적용 대상이나, 대내외적인 탄소감축 기조에 따라 정유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21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 3차에서도 정유 업계는 무상할당으로 분류됨
- 대내외적인 저탄소-친환경 트렌드로 탄소감축 관련 제도 적용, 탄소감축 목표 강화 논의 등에 따라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탄소감축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금번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정유산업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정유업종도 고려 대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산업계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80%의 감축이 필요함. 향후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소배출권 추가구매, 총당부채 과다계사 등 재무적 어려움이 예상됨
- 정유산업은 탄소 감축과 함께, 원유 수요의 점진적 감소에 대응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대 이후 원유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BP(영국) 역시 2020년대 후반 원유수요의 정점 도래 및 2030년대 이후 감소세를 전망하고 있음
- 국내 정유업체는 한국석유공사, 동광화학 등 민·관과 함께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특히 정유공정 중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용이하여 이를 중심으로 적용 방법 모색 중
- 다만, 선진국 대비 기술력, R&D 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국내 CCUS 기술은 미국을 기준으로 80%이며, 기술격차는 5년으로 평가됨
-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 등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진출 또한 모색하고 있음. 수소경제는 생산-저장-운송-활용의 여러 개의 산업이 복합된 구조로 정유기업은 수소 생산 및 인프라 사업(액화수소, 충전소)에 주력하여 수소경제로 진출 모색 중임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생산방식, 수익구조 등에서 정유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사업으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 미국 시총 상위 기업 중 기업의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 내 여성 비율이 섹터 내 상위 10%인 기업 대상
- 최소 한 명의 여성이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었지 않을 시 해당 기업 배제
-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비중을 결정하되 개별 종목 비중 제한(최대 5%)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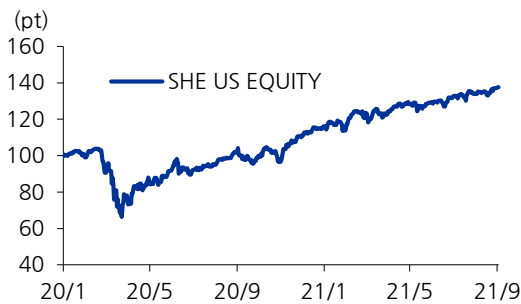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SHE US EQUITY
상장일	2016-03-08
운용사명	State Street ETF/USA
총보수율(%)	0.2
기초지수	SSGA Gender Diversity Index
가중 방식	Market Cap
주당 가격(달러)	104.19
보유종목 수	195
시가총액(백만달러)	281.3

시총/전략/지역 Large-cap / Blend / U.S.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1.9	0.3	4.5	16.2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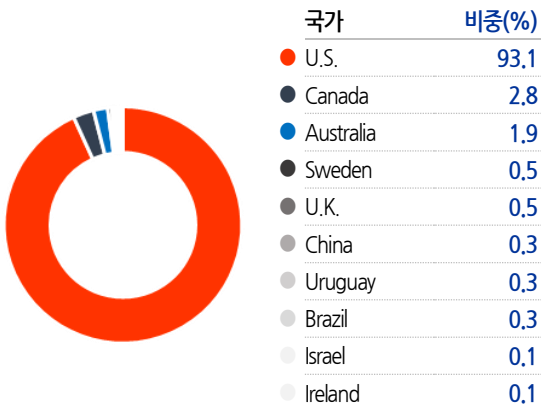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DIS US	Walt Disney Co/The	334,569	5.1
PYPL US	PayPal Holdings Inc	334,085	4.8
CRM US	salesforce.com Inc	251,799	4.7
V US	Visa Inc	494,133	4.7
NFLX US	Netflix Inc	264,991	4.4
UNH US	UnitedHealth Group Inc	380,854	4.4
INTU US	Intuit Inc	154,947	3.1
NKE US	NIKE Inc	258,979	3.0
SQ US	Square Inc	113,959	2.3
SHOP CN	Shopify Inc	185,796	2.2
합계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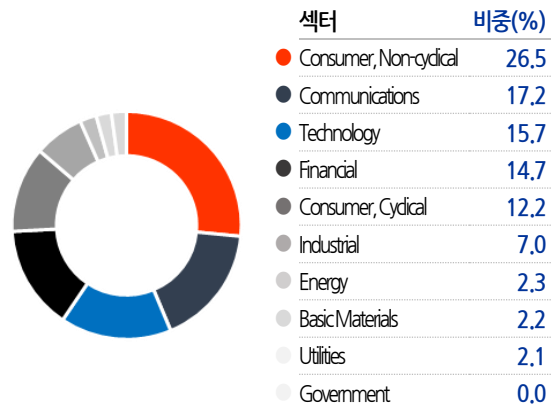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목표 8.

모두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FRDM

Freedom 100 Emerging Market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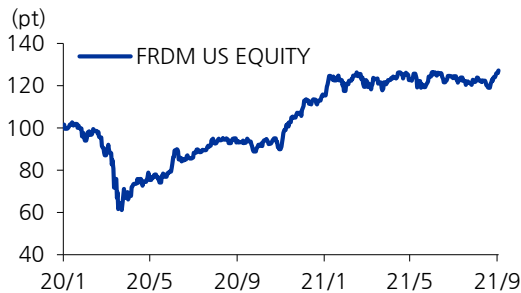
- 국가별 증시 시가총액을 종합하여 최소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선별
- 국가 내 개인·경제적 자유 수준을 기반으로 스코어를 산정하여 국가별 비중 결정
- 이후 각 국가별 비중 내에서 각국의 시총 상위 10개 기업을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비중 결정
- 한국 비중이 높음(15.6%)

ETF 개요

티커	FRDM US EQUITY
상장일	2019-05-23
운용사명	Alpha Architect ETFs/USA
총보수율(%)	0.49
기초지수	Life + Liberty Freedom 100 EM Index
가중 방식	Market Cap
주당 가격(달러)	34.25
보유종목 수	107
시가총액(백만달러)	89.1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Internation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1.6	1.8	-1.0	7.4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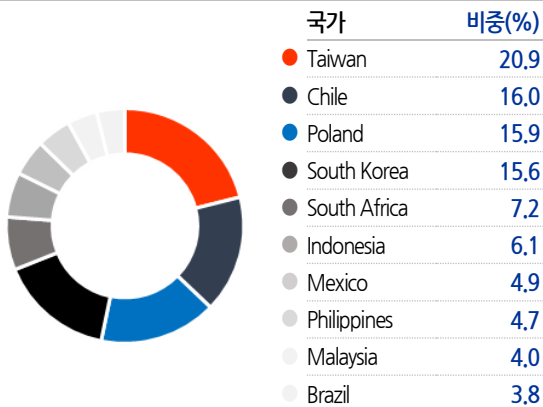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005930 KS	Samsung Electronics	384,380	6.3
BBCA JJ	Bank Central Asia Tbk	56,455	3.6
2454 TT	MediaTek Inc	53,278	3.0
CHILE CI	Banco de Chile	9,727	2.8
2317 TT	Hon Hai Precision	54,223	2.8
COPEC CI	Empresas COPEC SA	11,827	2.3
FALAB CI	Falabella SA	9,191	2.0
2303 TT	United Microelectronics	30,685	2.0
035420 KS	NAVER Corp	57,588	1.8
000660 KS	SK Hynix Inc	65,363	1.7
합계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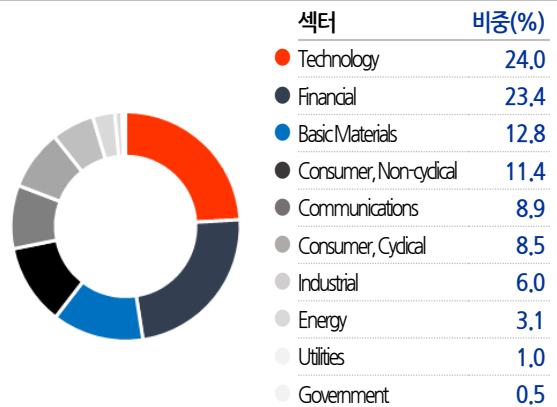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1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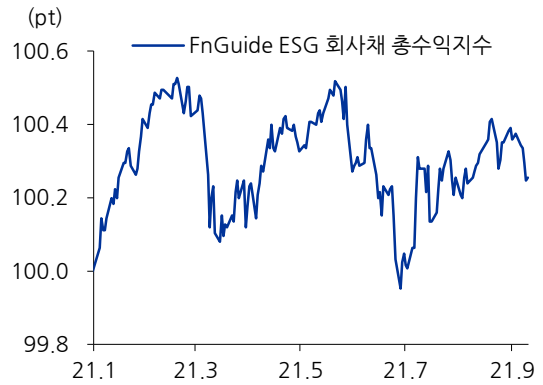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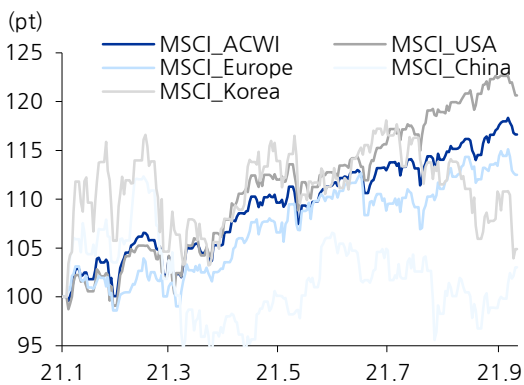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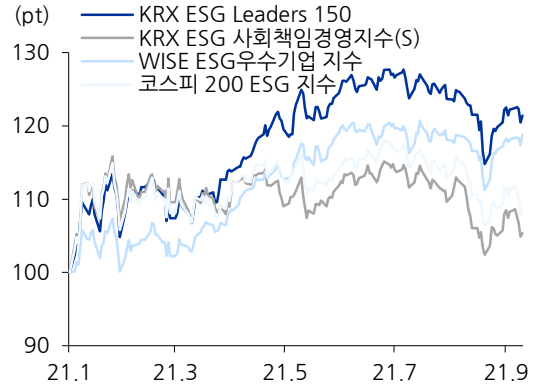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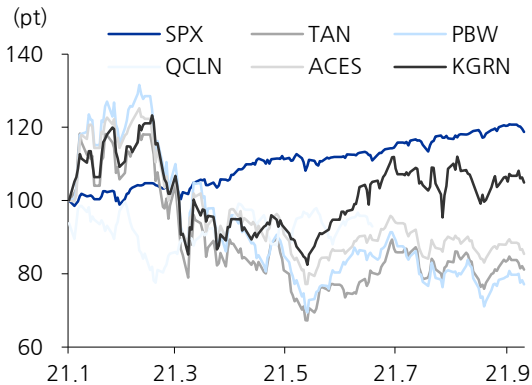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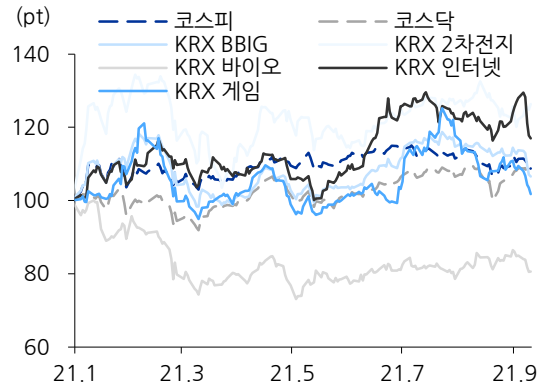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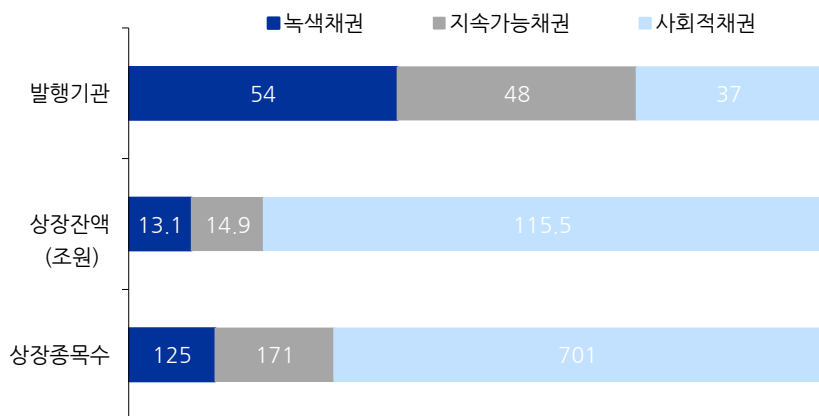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중소기업은행(신)2108 이 2A-02(사)	2021/09/10	1.40000	1,10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캐피탈 1891-1(지)	2021/09/10	1.54600	4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캐피탈 1891-2(지)	2021/09/10	1.77500	5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캐피탈 1891-3(지)	2021/09/10	1.78300	1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캐피탈 1891-4(지)	2021/09/10	1.86000	5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캐피탈 1891-5(지)	2021/09/10	1.91900	3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캐피탈 1891-6(지)	2021/09/10	1.91900	100,000
지속가능채권	교보생명보험신증자본증권 3(지)	2021/09/10	3.72000	470,000
지속가능채권	DL 건설 1-2(지)	2021/09/09	2.80700	39,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1)(사)	2021/09/09	1.28100	167,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2)(사)	2021/09/09	1.47100	1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3)(사)	2021/09/09	1.61000	2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4)(사)	2021/09/09	1.87600	51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5)(사)	2021/09/09	2.08000	2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6)(사)	2021/09/09	2.19900	1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7)(사)	2021/09/09	2.24600	1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8)(사)	2021/09/09	2.23200	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0(1-9)(사)	2021/09/09	2.24600	20,000
녹색채권	롯데렌탈 55-1(녹)	2021/09/09	1.97300	110,000
녹색채권	롯데렌탈 55-2(녹)	2021/09/09	2.25000	150,000
녹색채권	롯데렌탈 55-3(녹)	2021/09/09	2.66300	4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8(사)	2021/09/08	1.88700	7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9(사)	2021/09/07	1.59100	140,000
지속가능채권	전북은행 25-9 이 1 갑-03(변)(지)	2021/09/06	1.16000	10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